



삶의 향기

올드 속 이야기

박정혜 심상 시치료 센터장·전주대학교 겸임교수

고요한 평원에 양치기 세 명이 석관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이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옆에 선 여자를 훑듯 쳐다본다. 석관에는 라틴어로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Et in Arcadia Ego)'라고 적혀있다. 니콜라 푸생의 작품이다. 아르카디아는 그리스인들의 이상향이자 지상 낙원이라 여겨온 곳이다. 샹그릴라나 유토피아 같은 곳이다.

같은 맥락의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이 의미를 잘 반영한 화풍이 바니타스(Vanitas)다. 16세기와 17세기에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했다. 정물화에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배치해서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표현했다. 흔히 해골, 썩은 과일, 거품, 연기, 모래시계, 악기들을 그려 넣어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나타냈다. 바로크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는 예술의 여러 장르에서 죽음의 뉘스를 맡을 수 있다.

그 이전, 르네상스 때만 해도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은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죽음을 영원한 휴식이라고 보기도 했을 정도다. 바로크인들은 죽음을 더할 나위 없이 처참하고 두려운 상태라고 여겼다. 시간의 흐름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은 대다수 현대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죽음은 매 순간 인간을 노리고 있으며,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여긴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 '올드(Old)'는 다분히 바니타스적이다. 올해 8월에 개봉한 이 영화 속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만날 수 있다.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해변에 초대받은 이들, 지상낙원에서 지내는 동안 괴기스러운 일

가족 여행을 했다. 갖가지 일들을 겪고 모닥불 곁에 모인 가족들. 리조트로 오는 내내 불렀던 노래를 아이가 부른다.

사랑의 큐피드가 쓴 거친 화살을 맞고 우린 제단에 섰네. 상처 입고 피를 흘리면서. 나도 언젠가 물에 휩쓸려 사라지겠지. 하지만 날 위해 묘비를 세우진 말아요. 어떤 삶도 내 인생과 바꿀 순 없어요. 그대 있는 이곳에 나 함께 있으리. 끝까지 남아있으리.

이미 기억이 희미해진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한다. 우리 뭘가로 싸웠었나? 이유가 뭐였든 나 당신한테 화 풀렸어. 기억도 안 나. 우리, 왜 이 해변을 떠나려고 했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상하네.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 당신에 대한 느낌에 관한 건데. 남편의 말에 아내의 대답은 그냥 안다고 답한다. 남편과 아내의 거의 동시에 사망하고 만다. 처음 해변에 도착했을 때 6살, 11살이던 아이들은 50대가 되었다. 그리고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삶의 축복이다. 시간이 쯤쨌게 흘러가고, 죽음이 함께 호흡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름답다. 생각해보자. 아이가 불렀던 노래 가사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과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시간 속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들을 겪는다.

암벽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 생체활동이 빨라지게 되어 급격하게 세포가 성장하고 노화가 일어난다. 이 해변에서는 60분이 2년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하나 둘씩 죽어간다. 탈출을 시도하면서 익사하거나 암벽에 오르다가 떨어져 죽는다. 미처버린 의사가 휘두르는 칼에 의해 죽기도 하고, 칼슘 부족으로 온몸을 뒤틀며 죽기도 한다.

아이들의 부모는 사실, 이혼을 앞두고

독자의 창

이런 자동차 안전운행을 바라며

이런 자동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쉽게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행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행위는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요란한 엔진의 굉음을 내면서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위험

천만한 이륜자동차의 불법적인 위험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안전모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골목이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급경차시 아이가 이륜차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아이들을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태울때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와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과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이륜자동차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황수현(안주경찰서 운주파출소)

mz세대의 시선

오늘 그려본 내일

시각장애인 화가 존 브램블리트는 10대 때와 20대 때 앓았던 병의 합병증으로 의사에게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존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력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유화'를 접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기 시작했다. 시각 대신 촉각으로 색을 구분하고 청각을 통해 그림을 상상해 내는 등 시각으로 인해 잊혀졌던 다른 감각들을 불러오면서 시각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냈다.

통계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한다. 이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부재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었던 존의 사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감각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가 서서히 보는 법을 잊게 된 것이기에 존 또한 전과 다른 세상에 상심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했

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감각들을 200% 활용하여 남들과 다른 새로운 자신을 찾아냈다.

존이 그림을 그리는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의 자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초월하여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면서 모두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기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오늘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혼자가 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탐구하여야 모두가 오늘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미량(강소년 기자)



기고

가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대책

전세준 한전 전북본부 안전재난부 대리



최근 정부는 워드코로나로 대응 방법을 전환할 예정이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전력설비에 근접해서 부득이하게 작업할 경우에는 한국전력 등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가을철 가정과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첫 번째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다. 난방기구 사고 유형 중 화재 및 감전사고의 비율이 높는데, 이 중 전기장판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다. 전기장판은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내부 열선의 단선, 피복 손상에 의한 합선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작년에 보관하였던 전기장판을 접혀 있었거나, 무거운 것에 눌러 보관되었다면 전선의 피복 상태 등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콘센트 및 멀티탭 사용시 주의할 점이다. 콘센트는 주변에 먼지가 쌓여있을 경우 플러그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콘센트 사용 전에는 주변을 청소하고, 오래된 콘센트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개의 멀티탭에 너무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은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는 방법은 집안에 전기기구 사용을 종료하고 시험용 버튼(누전차단기 손잡이 주변 노랑색 또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차단기가 내려간다면 정상이고, 내려가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이다. 작업현장에서의 전기 안전사고를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첫 번째는 건설현장에서 주의할 점이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중장비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특히, 크레인으로 하중물을 운반 중 부주의로 전력선에 접촉하거나 강관 비계를 설치하는 중 전력선과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압전선에는 22,900V의 특별고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도 90cm 이내에서는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전력선비 인근에서 작업을 할 경우, 중장비와 자재들이 충분한 이격거리(상방 2.5m, 측방 1m 이상 등)를 확보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이사를 할 경우의 주의할 점이다. 가을철이 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력선과 건물이 인접해 있어 이사 업체의 사다리차 장비가 고압전선과 접촉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낫시터에서 주의할 점이다. 낫시대와 전력선이 접촉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야외 낫시터 주변에는 전력설비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활동하고, 이동 중에는 낫시대를 접고 이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다.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내 / 063) 230-5700	FAX / 063)231-83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우순금	광고 / 063) 230-5714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제보 사회부 / 063)230-5850	경제부 / 063)230-5840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정치부 / 063)230-5821	사실팀 / 063)230-5842	자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제보·투고 사회현상이나 일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읍시다. | 홈페이지 sjbnews.com/커뮤니티/독자투고 게시판 | 이메일 sjb2822@gmail.com

## 구독 신청 안내

063) 230-5712

<b>중부</b>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고려병원, 인후위브어울림, 인후, 한신유, 유일여고, 기린초, 인후초, 아중리 일대.	<b>서부</b>	경원동, 고시동, 중앙동, 교동, 전동, 진부동, 용남동, 다가동, 태평동, 서노송동/전주시청, 덕진구청, 시교육청,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대성, 9K뷰, 혁신도시
<b>서전주</b>	서신동, 효자동4가(서곡지구)/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본부, e편한세상, 서신초, 한일고, 서신중, 전주서중, 여울초, 서일초, 서신동 일대.	<b>중화산</b>	효자동1가 일부, 효자동2가~효자동4가, 중화산동/도청, 경찰청, 효자신사거리,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b>평화</b>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전주교대, 전주교도소	<b>효자</b>	효자동1가 일부/삼천1동~삼천3동, 상산고, 서도프라자, 혜성고
<b>덕진</b>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우아동1가, 우아동2가, 전북대, 전북대병원, 고속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송내고, 우아동3가, 용진동, 완주군청	<b>완주</b>	봉동읍 봉동 지역, 3공단 상례읍
<b>팔복</b>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은동, 고광동, 성덕동, 만성지구/덕진경찰서, 월드컵경기장, CB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b>새전북신문</b> THE SAEJEONBUK SHINMUN	
<b>남전주</b>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완산동/예수병원, 전주병원, 신동중, 신동고, 기전대학, 화산체육관, 근영여고, MBC, 화산동림, 중화산광진, 석정수벨리스, 남양왕실, 한신유		

새전북신문이 쓰면 大韓民國이 읽습니다.